

금호타이어 노사 통상임금 소송 마무리 수순

노사 교섭서 소송 취하 잠정 합의 3천여명 2년5개월 법정수당 지급 오늘까지 찬반투표 가결여부 결정 사측 “노사합심 공감대 형성 의미”

금호타이어 노사가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법정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데 잠정 합의한 가운데 노조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가결되면 지난 10년여 간의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0일 교섭을 통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통상임금 상여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소송 제기자 및 전·현직 사원 3000여명에 대한 2년5개월분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이는 더 이상의 상호 추가 소송 없이 통상임금 추가 지급에 대한 분쟁을 화해 종결하고 해당하는 사원 모두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3년 전·현직 사원 5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을 시작으로 노조원 3000여명 등이 추가로 제기한 10여건의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해왔다.

2016년 1심 판결은 원고 일부 승소로, 2017년 2심에서는 신의성실 원칙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측이 승소한 바 있지만, 2020년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며 그동안 광주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왔다.

결국 지난해 11월 노동자 조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사측이 일부 패소,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중 70.2%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1400억~1500억원가량의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었

다. 사측은 당시 재상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조 측과 단체협상을 진행해온 결과 이번 잠정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전·현직 사원 3000여명에 지급할 2년5개월분의 법정 수당을 산정 중으로, 소송 제기자들의 기준을 활용해 일률적으로 계산된 1400억원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주 조합원 설명회 등을 거친 금호타이어 노조는 이날과

1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가결 시 회사 측과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잠정 합의는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가 합심해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적 절차와 별개로 갈등 없이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회사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와 조속한 경영정상화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정기총회 개최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에 감사패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는 지난 10일 위더스광주에서 제3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총회에는 대표회원 100여명과 윤학수 중앙회장, 이병훈 국회의원, 이형석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협회 명예회장·고문 등이 참석했고 강기정 광주시장을 대신해 김중호 도시공간국장님이 축사를 전했다.

박병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건설업계는 생산체계 개편 문제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지만 회원간의 화합과 단결

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아가 할 것”이라며 “협회는 이러한 건설환경 변화에 발맞춰 회원사들의 권익보호 활동과 업역 확대, 수주물량 증대를 위한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전문건설업계 권익신장 및 업역 증진에 공헌한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에 감사패 전달과 함께 관계 공무원, 종합건설사, 협회발전 유공회원사 등 35명을 포상하고,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 의결했다.

최권범 기자

신협 ‘생활밀착형 모바일 플랫폼’ 개발

조합원 홍보·혜택·마켓 기능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생활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신협은 모바일 플랫폼 중심의 금융 서비스 생태계 변화에 따라,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신협만의 멤버스 커뮤니티를 구축하고자 이번 사업을 실시한다.

서비스 항목에는 △조합원들을 위한 할인 혜택, 생활 서비스, 정보마당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오픈마켓 △신협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라이프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신협의 새로운 생활플랫폼은 상품 광고, 이벤트, 커뮤니티 등을 단위 신협별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 이는 각 신협이 개별 법인인 금융협동조합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려된 것이다. 조합별 특장점을 전략적으로 홍보·마케팅하고 접근이 쉬운 고객 서비스로 연결해 조합과 조합원의 니즈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협은 조합별 특화 서비스와 상품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전용 마케

팅 플랫폼을 갖추게 된다. 조합원 또한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신협의 혜택과 함께 위치기반서비스를 활용한 할인, 포인트, 캐시백 등 가입 신협이 제공하는 지역 중심의 제휴 혜택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협 최초의 모바일 생활플랫폼은 오는 4분기 중 대고객 오픈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

제1054회 나눔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14 19 27 28 30 45	33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31억4792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7154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73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익산청, 1조1437억 투입 34개 SOC사업 추진

도로·교통 등 올해 업무계획 발표 호남 경기회복·지역성장 등 초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이 올해 한 해 1조14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4개 도로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추진한다.

익산청은 12일 호남지역 경기회복, 건설재해 예방,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익산청은 먼저 지역발전에 성장동력이 되는 SOC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용진·우아 등 30개 계속사업(4개 준공)과 동면·송광 등 4개 신규사업 등 총 34개(3607억원, 256.3km) 도로망 확충 사업 등을 추진하고 1분기에 전체 예산의 38%, 상반기까지 63%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현안인 지역개발사업(202개)을 지원하고, 관내 해안도로와 연계한 천사대교 복합센터(랜드마크화)

및 스마트복합센터(고층, 부안)를 조성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근절 등을 통해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고 사고예방과 현장관리 강화로 재해예방을 추진한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합동 전담팀을 구성, 현장 점검(주3회·6개소)을 추진하고,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한 페이퍼컴퍼니 점검을 확대(2억원→10억 월 미만 공사) 실시한다.

사망률이 높은 추락·갈림 사고와 민간·소규모 건설현장 등 취약분야는 맞춤형 점검을 추진하고, 고위험공종이 포함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지문을 실시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차단한다.

익산청은 스마트 도로·교통관리체계 구축으로 각종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ITS 시설물(CCTV, VMS 등)을 확대

구축(791km)해 운영하고, 해상교량 선박 충돌 예방 관제시스템 구축 및 안전시설 정비 등 스마트 도로·교통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폭설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호남권 총괄 재난대응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 재난·사고 대비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관내 교량, 터널 등 공중이용 도로시설물(제1·2·3종, 1778개소) 안전점검 실시, 노후 시설물 이상징후 계측시스템 및 원격제어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호남권 총괄 교통안전종합대책(IKSAN전략)을 수립·추진해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등 교통안전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창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경기회복과 지역성장을 이끌 SOC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71호점 선정

우성지역아동센터 책상·의자 교체

광주은행은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우성지역아동센터에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71호점 선정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71호점으로 선정된 우성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동들에게 방과후 학습과 돌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시설로 40여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다.

조현기 부행장과 광주은행 지역사랑방사단 직원들은 우성지역아동센터의 노후된 학습환경을 개선하고자 책상과 의자, 빔프로젝터를 교체했으며, 학습품 등을 선물하는 등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해 추후 학습실 도배 시공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현기 부행장은 “지역 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등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며 “지역민과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



회공헌활동과 더불어 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한 ESG 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일에 앞장서며 지역사회에 나눔의 기업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희망이 꽃

피는 공부방’을 현재 71호점까지 선정했으며,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꿈을 위해 정진하는 지역 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준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를 현재 8호까지 선정해 대학 진학까지 학습 지원금을 후원함으로써 지역 아동과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선정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호응을 얻고 있다.

최권범 기자